

일본계 미국문학에 반영된 태평양 전쟁

안 임수*

(e-mail : croir1217@hotmail.com)

目 次

- I. 들어가며
 - II. 태평양전쟁
 - III. 일본계 미국소설에 나타난 태평양전쟁
 - IV. 나오며
-
-

I. 들어가며

세계 각국의 인종이 모여 다름 속에서 아메리칸 드림(American Dream)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지향하는 나라가 미국이다. 처음 미국을 구성하기 시작한 나라들은 영국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이었지만 이제는 아시안 인구의 구성 비율도 상당한 수에 달해 현재 600만명 이상(2000년 통계)이 살고 있으며, 이 중에서 필리핀계는 180만, 중국계 140만, 한국계 110만, 일본계 100만명 정도의 인구 구성을 보인다. 그래서 주로 태평양 지역에 많은 분포를 보이는 아시아계 미국인들도 하나의 정치세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다. 이들은 아시아적 가치라는 공통의 가치를 존중하면서 아시아인들끼리 단합과 협력을 모색하고 공직자를 포함한 미국의 주류사회에 적극 진출함으로써 미국의 여러 소수민족 가운데 모범적인 그룹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리고 본국에서의 관계를 떠나 같은 아시안 아메리칸이라는 동질성 때문에 한국계와 일본계, 그리고 중국계 미국인들은 특히 가까운 유대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는 도덕적, 문화적 가치의 뿌리를 공유하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이처럼 세 나라 출신의 아시안 아메리칸들

* 관동대학교 교수

의 친밀한 유대관계는 오히려 본국에서의 상대방 국가와의 복잡한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도 있겠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와 불편한 관계에 있는 일본계 미국인의 문학을 연구하는 것은 멀리 보면 한국과 일본의 거리를 좁히는 데 기여할 수도 있으며 마찬가지로 한국계 미국인의 문학을 연구하는 일본인이나 일본계 미국인의 연구를 통해 한-일 관계를 증진시킬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비록 일본인이 아닌 일본계 미국인의 작품 연구이긴 하지만 본 연구는 가깝고도 먼 일본인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일본계 미국 문학이란 대부분 일본에서 태어나서 부모 세대의 이민으로 미국으로 와서 학교를 다닌 일본인 2세 미국인이 영어로 미국에서 발표한 작품을 말한다. 아울러 미국에서 태어나기는 했지만 여전히 일본인 커뮤니티에서 생활하면서 미국인과 일본인의 중간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거나 오히려 여전히 일본인의 정체성이 더 강한 사람들에 의하여 씌어진 작품들을 의미하기도 하는 말이다.

일본인의 미국으로의 이민은 1900년대 초 하와이에 정착한 일본인이 미국 이민의 시초이다. 이들 중 일부는 미국 본토로 이주하거나 캐나다로 이주한 경우와 1960년, 1970년대에 관광이나 유학생으로 미국에 왔다가 현지 미국인과의 결혼이나 취업 등으로 미국에 정착한 경우, 그리고 1980년대 이후 IT 기술의 발달로 고급 두뇌로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연구소 등에서 근무하거나 미국의 초청을 받아 정착한 경우 등 여러 가지 경로를 보인다.

1893년에 수립된 하와이 공화국이 미국과의 합병에 동의한 1898년 이후 하와이에는 본격적으로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확산되었다. 하와이의 농장주들은 값싼 노동력을 필요로 하여 시험적으로 중국인들을 고용했으며 중국인들은 하와이 원주민과 달리 값싼 임금에도 열심히 일을 하여 농장주들에게 큰 이익을 주었기 때문에 농장주들은 그 이후 중국 본토로 가서 대규모로 중국인 노동자들을 모집해서 데려왔다.

1882년 미국 본토에서 중국인 이민 금지법이 통과된 후에는 중국인 노동력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일본의 가난한 남서부 지방에 모집단을 보내 하와이 이주를 지상낙원이라고 속여 많은 일본인 이민자들을 데려왔다. 메이지 유신 이후 봉건제도로부터 자본주의로의 체제로의 변화기에 높은 세금과 천재지변, 빈곤의 악순환을 겪고 있던 가난한 일본의 소작인들은 이민 모집단에 쉽게 포섭되었다. 일본인들의 미국이민은 1924년까지 계속된 일본에서의 메이지유신이 시작된 1868년에 시작되었다. 1924년은 국적기원 법령의 엄격한 제한으로 인해서 거의 모든 일본인들의 미국이민이 중단된 해였다.

일본인 1세대 이민자의 대다수는 미국 서부해안을 따라 정착했는데, 그곳에서 농업이나 정원 일, 또는 어업이나 가사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았다. 일

본인 농부의 성공은 이미 존재하던 미국의 반아시아 정서에 큰 영향을 미쳐 1913년과 1920년에 캘리포니아에서 외국인 토지법령안이 제정되고 그 외의 지역에서도 이와 유사한 법령이 통과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이 법안들은 시민권을 받기에 부적절한 외국인에게 토지의 소유와 임대를 금지하였다. 특히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 이러한 법안들은 그룹으로서 귀화시민이 되지 못한 모든 아시아인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1952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토지 법안은 헌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결이 나서 아시아 이민자들의 시민권이 승인될 수 있었다.

이렇게 20세기 초반에 하와이에 자리 잡기 시작한 일본계 미국인 커뮤니티는 엄격한 일본식 위계질서와 높은 공동체 의식으로 다른 어떤 아시아계 이민 사회보다 번창하여 현재 하와이 인구에서 백인과 원주민을 빼고 가장 많은 인구를 자랑하며 경제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하와이를 지배하는 세력이 되어 있다.

아울러 서부 태평양 연안을 따라 캘리포니아에서 시애틀에 이르는 지역에도 많은 일본인 거주 지역이 있으며 특히 시애틀은 아시아 출신 인구 중에서 일본계의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이 지역 사회에서 아시아인들의 여론을 주도하여 시애틀 시내의 공립학교에서 가르치는 외국어 중 불어와 독일어 등 유럽어보다 일본어를 선택한 학교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앞으로는 중국어를 선택하는 학교가 더 많아질지도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일본어가 우세이다. 한국어를 가르치는 공립학교는 한 군데도 없는 것이 현재의 실정이라서 한국정부나 민간차원의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그래서 연중 많은 일본인 커뮤니티의 행사가 끊이지 않는다. 예를 들면 매년 가을 시애틀에서 열리는 “미스 저팬” 행사는 일본인 커뮤니티에서 가장 큰 관심을 끄는 행사로 인기없는 좌석의 입장료도 30달러에 달하는 것을 보면 일본계 시민들의 높은 관심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선발된 미인들은 해외의 일본 미인 대표로 일본 본토에서 열리는 “미스 저팬” 행사에 가족과 함께 초대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어 젊은 일본계 미국인 여성들에게 큰 관심을 끌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대표적인 일본계 미국 작가 밀턴 무라야마(Milton Murayama)의 『내가 원하는 것은 오직 내 몸』(*All I Asking for is My Body*), 존 오카다(John Okada)의 『노-노 보이』(*No-No Boy*), 모니카 소네(Monica Sone)의 『2세 딸』(*Nisei Daughter*), 그리고 조이 코가와(Joy Kogawa)의 『오바상』(*Obasan*)을 중심으로 일본계 미국인들이 태평양 전쟁 때문에 겪었던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 고통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밀턴 무라야마는 하와이에서 태어난 일본계 이민 2세로 하와이를 대표하는 일본계 미국작가이기도 하다. 『내가 원하는 것은 오직 내 몸』은 1975년 처음 출판된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지만 1976년 무라야마가 태평양 북

서 아시안 아메리칸 작가협회(Pacific Northwest Asian American Writers' Conference)에서 이 작품의 일부를 낭독하고 소설전략에 대해 강연한 이후, 그리고 하와이에서 가장 유망한 아시아계 미국문학 출판작으로 선정된 이후 미국전역에서 이 책의 주문이 쇄도함으로써 대표적인 아시아계 미국소설로 대접 받고 있다.

존 오카다는 1923년 시애틀 출생으로 워싱턴 대학 재학 중 미국 육군에 자원입대하여 하사관으로 제대했다. 종전(終戰) 후 워싱턴대학(University of Washington)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컬럼비아 대학에서 사회학 석사학위를 받은 후 그는 다시 워싱턴 대학에서 도서관학을 전공하여 시애틀 도서관에서 근무하고 로스앤젤레스의 캘리포니아 대학 도서관에서도 근무했다. 그의 첫 작품인 『노-노 보이』는 1957년 처음 출판된 이후 1976년에 2판, 1979년 워싱턴 대학 출판부에서 3판, 1993년 8번째 판이 나오는 등 오카다의 이 작품은 2차대전 중 일본계 미국인들의 고통을 대변하는 작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모니카 소네는 1919년 시애틀에서 태어난 일본계 여성 작가로 부모가 백인 부두 노동자들을 고객으로 하는 호텔을 경영하였기 때문에 유년시절 백인들과 일상적인 접촉을 하면서 자라나 다른 일본계 미국인의 경우와는 다른 성장과정을 보인다. 1953년에 나온 『2세 딸』은 일본계 미국 여성에 의해 집필된 최초의 자서전으로 위의 두 작품과 달리 출판 당시부터 인종의 도가니(melting pot)를 적합하게 묘사한 기념비라는 호의적인 반응을 받았다.

결혼하기 전의 성은 나카야마(Nakayama)였던 『오바상』의 작가 조이 코가와는 주인공 나오미처럼 브리티시 콜럼비아 내륙의 탄광촌 슬로칸에 강제로 배치되며 전쟁이 끝난 뒤 코가와와 가족은 앨버타의 코울데일에서 사탕무 농장으로 강제 이주된다. 그러나 나오미 가족과는 달리 코가와와 가족과 함께 머물 수 있었다. 『오바상』의 인물들에는 코가와와 가족과 친구들의 모습이 반영된다. 유치원 교사였던 코가와와 어머니는 오바상과 나오미의 어머니의 모델이며 영국 국교회(Church of England)의 신부(priest)였던 그녀의 아버지는 나카야마 선생의 모델이 되었다.

II. 태평양 전쟁

1937년 중일전쟁으로 일본의 공격을 받고 있던 중국에 1938년부터 미국과 영국의 원조가 시작된다. 그 결과 1939년 7월 미국은 중국 원조 방안의 하나로 일본에 미, 일 통상조약의 파기를 통고했다. 당시 일본은 전략물자의 상당한 부분, 예를 들면 선철의 90퍼센트, 동의 91퍼센트, 석유의 66퍼센트를 미국으로부터 구입했으므로 통상조약의 파기는 일본에 커다란 타격이었다. 미국의 대

일본 석유 수출 금지와 함께 영국, 중국, 그리고 네덜란드까지 일본을 고립시켜¹⁾ 일본은 외교 교섭을 통하여 미국의 결정을 번복시키려 했지만 타협을 보지 못하고 드디어 미, 일 통상조약은 1940년 1월에 효력을 상실했다. 이후 미, 일 관계는 급속도로 악화되었다. 그렇지만 태평양 전쟁 직전의 미국의 입장은 1차 대전의 악몽 때문에 여전히 외교적 해결을 기대하고 있었다. 당시 미국의 입장은 다음과 같았다.

두 나라의 외교관들은 4월 이후 협상을 계속해왔다. 일본은 중국과 교전 상태에 있었으며 이 사실은 미국으로 하여금 태평양 지역의 불안정을 염려하게 했다. 유럽은 이미 전쟁 상태에 있었으므로 세계의 정세는 지극히 위험했지만 미국은 1차 대전을 되풀이하고 싶지 않았다.

Diplomats between the two countries had been negotiating since April. Japan had been at war with China and the United States was worried about instability in the Pacific region. With Europe already at war, the world situation was xtremely dangerous. Americans didn't want a repeat of World WarI.

(<http://www.googole.co.kr/lawbuzz.com/tyranny>)

인도차이나 반도의 침략과 3국 동맹(독일, 이탈리아, 일본)으로 미국은 일본의 잠재적 적국이 되어 미, 일관계의 평화적 해결은 불가능했다. 그렇지만 미국과 마찬가지로 일본도 미, 일 협상에 약간의 여지를 남겨 1941년 봄부터 워싱턴에서 미, 일 회담을 가졌지만 4월 16일 미국 측은 외무장관 헐의 이름으로 된 헐 노트(Hull note)를 일본 측에 제시했다. 그러나 일본은 미국에서 제시한 헐 노트를 거부하고 미국에 반발하듯 그 해 7월에 사이공을 점령했다. 미, 일 통상조약의 폐기 이후 항공기용 휘발유를 비롯하여 전략물자의 금수(禁輸) 범위를 확대해서 일본을 경제적으로 압박하고 있던 미국은 이와 같은 사태 진전에 따라 미국 내의 모든 일본 자산을 동결하고 일본으로의 석유 수출을 전면적으로 금지했다.

이에 일본은 9월 초 어전회의(御前會議)에서 10월 초까지 미국과 일본 사이에 타결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미국과 영국에 대해 전쟁을 포고한다는 정책을 결정하고 일본의 최저요구사항으로 미국의 중국에 대한 원조 포기와의 미, 일 통상관계의 정상화를 미국 측에 제안했다. 이에 대해 미국은 11월 26일

1) 1940년 6월 독일이 프랑스와 네덜란드를 점령하자 일본은 아시아에서 주도권을 잡으려고 프랑스와 네덜란드의 아시아 식민지를 침략하여 1940년 9월에는 프랑스의 식민지인 인도차이나를 점령하고 미국에 대한 견제로 독일과 이탈리아와 3국 동맹을 맺고 소련의 위협을 막기 위해 일, 소 중립조약을 체결한다. 이와 같은 일본의 침략행위와 노련한 외교에 대항하기 위해 미국, 영국, 중국, 네덜란드는 ABCD(America, Britain, China, Dutchland) 포위진으로 대일 경제 봉쇄정책을 폈다.

(1941년) 중국과 프랑스령 인도차이나로부터의 일본군의 철수, 3국 동맹의 해체라는 이전의 요구를 되풀이했다. 미, 일 협상이 결렬될 것을 예상했던 미국이었지만 루스벨트는 미, 일 협상을 타결하기 위한 최후의 노력을 기울여 1941년 12월 6일 일본천황에게 평화를 호소하는 친서를 타전했다.

그렇지만 이미 미국과의 전쟁을 국론으로 결정한 일본²⁾은 11월 26일 기동함대를 쿠릴열도에서 발진시켜 미국 태평양함대의 근거지인 진주만으로 향했다. 일본의 기동함대는 12월 7일 미국 측의 제안에 대한 일본 측의 최후회답을 주미 일본대사가 미국 국무장관에게 통지하기 전에 진주만을 기습하여 순식간에 정박 중인 전함 8척과 함정들을 격침하고 300대의 군용기 격파와 2,300명의 장병의 생명을 빼앗는 커다란 전과를 올렸다. 선전포고 없이 감행된 일본의 선제공습을 미국은 ‘기만적 공격’이라고 맹렬하게 비난했다. 일본과 하와이의 거리 때문에 일본의 기습 가능성을 전혀 예상치 못한 미국의 입장은 1941년 12월 7일 일요일 새벽 레이더에 잡힌 많은 수의 비행기 편대를 본토에서 오는 B-17기일 것으로 판단한 레이더 장교 타일러 중위의 생각에서 분명히 알 수 있다.

타일러 중위의 관독에는 오류가 있었다. 하와이 시간으로 아침 7시 15분, 오판나 레이더 기사가 “이제껏 보지 못한 많은 수의 전투기가 시야에 포착된다”라고 보고했을 때 타일러는 그 비행기들이 본토에서 하와이로 오고 있는 미국 전투기 B-17기 들일 것으로 오판했던 것이다.

Lt. Kermit Tyler was wrong about the readings. At 7:15 a.m. Hawaii time, when the Opana radar operator reported "a larger number of planes than he had not seen before on his scope," Tyler thought the planes were American "B-17's en route to the Islands from the mainland."

(www. google.ac. kr/lawbuzz.com)

만약 타일러 중위가 7시 15분 레이더 담당자의 보고를 간과하지 않고 본토에 문의하여 그 많은 전투기들이 일본 전투기임을 확인하고 이 때라도 신속한 조치를 취했다면 조종사들과 무방비로 노출되어있던 히컴 기지(Hickham Field)의 전투기들의 손실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며 또한 함정 폭

2) 1941년 10월 미국이 일본의 중국 철수와 삼국동맹의 무효를 주장하자 일본내각은 의견이 분열된다. 이에 따라 신체제 운동을 추진하고 있던 고노에 내각이 퇴진하고 전쟁론자인 도조 히데키 육군대장에 의한 신내각이 수립되며 이 내각은 완전히 전범 내각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전쟁준비에 전력을 기울였다. 일본의 전쟁 의사를 탐지한 미국은 일본에게 만주사변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것을 요구하는 최후통첩을 보냈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일본은 개전을 결의하고 진주만을 공격한 이후 12월 8일에는 말레이 반도를 침략하고 미국과 영국에 선전포고를 함으로써 태평양전쟁이 시작되었다.

격으로 인한 선원들의 손실도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어뢰 방지 장치(torpedo net)조차 설치하지 않은 채, 포드 섬(Ford Island)에 나란히 정박해 있던 오클라호마(the Oklahoma), 웨스트버지니아(the West Virginia), 캘리포니아 호(the California), 그리고 아리조나 호(Arizona)에 대한 일본의 기습폭격으로 이 배 한 척에서만도 900명의 인명손실이라는 끔찍한 참상이 기록되었다.

아리조나 호의 손실은 그 날의 전력손실의 50%를 차지 할 만큼 컸는데 미국 해군의 역사상 그렇게 많은 선원이 단 번에 침몰당한 일은 처음이었다. 이날의 충격으로 해안에서 정면으로 보이는 위치에 격침된 함정과 똑같은 모양의 USS(U.S. Ship의 약자) Arizona가 현재도 1941년 당시와 같은 자리에 위치하여 미국인이나 역사적인 사실을 알지 못하는 관광객에게나 다 같이 그 날의 희생자들을 잊지 않으려는 미국의 굳은 의지를 보여준다.

진주만이 기습당한 다음날인 1941년 12월 8일 미국 대통령 루스벨트는 의회의 상, 하 양원 합동회의에서 대일 개전(開戰)을 촉구하는 교서를 읽었다. 교서는 절제 속에 끓어 넘치는 분노를 보여주고 있다. 그의 연설문은 애초에는 「세계 역사에 남을 날」(“A date which will live in world history”)라는 평범한 어조로 시작될 것이었지만 「통한의 날」(“Day in Infamy”) 라는 기억에 남는 연설로 바뀐 것만 보아도 미국국민의 분노를 짐작할 수 있다.

어제, 1941년 12월 7일-우리의 수치로 기억될 날-미합중국은 일본 제국으로부터 갑작스럽고 의도적인 해군과 공군의 공격을 받았다. 미국은 그 나라와 평화적인 관계에 있었고 일본의 요청에 의하여, 태평양에서의 평화 유지를 바라면서 일본 정부의 황제와 대화를 계속하던 중이었다. 일본에서 하와이까지의 거리로 보아 어제의 공격은 여러 날 또는 심지어 여러 주 전에 의도적으로 계획되었다는 점이 분명하다는 사실이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우리의 전력에 대한 자신감으로-그리고 우리 국민의 무한한 결단으로-우리는 틀림없이 승리를 쟁취할 것입니다-그러니 하느님 우리를 도우소서! 일요일인 12월 7일, 일본이 감행한 이유 없고 비겁한 공격으로 미합중국과 일본제국은 전쟁 상태가 존재한다는 판단에서, 나는 국회에 전쟁을 포고할 것을 요청합니다.

Yesterday, Dec. 7, 1941 - a date which will live in infamy -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as suddenly and deliberately attacked by naval and air forces of the Empire of Japan. The United States was at peace with that nation and, at the solicitation of Japan, was still in conversation with its government and its emperor looking toward the maintenance of peace in the Pacific. It will be recorded that the distance of Hawaii from Japan makes it obvious that the attack was deliberately planned many days or even weeks ago.

With confidence in our armed forces - with the unbounding determination of our people - we will gain the inevitable triumph - so help us God. I

ask that the Congress declare that since the unprovoked and dastardly attack by Japan on Sunday, December 7, 1941, a state of war has existed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Japanese empire.
(President Roosevelt's Address to the Congress on Dec. 8, 1941)

이러한 루즈벨트의 선전포고 결의안 동의 요청에 의회 또한 유례없는 만장일치(1명의 반대는 의미 없는 것으로 여겨짐)나 다름없는 찬성으로 가결하여 단 한 시간 만에 상원 82표 대 0표로, 하원은 388표 대 1표로 대일 선전포고 결의를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미국은 12월 9일 정식으로 일본에, 11일에는 독일과 이탈리아에 선전포고하였다. 이제 제2차 세계대전은 전 세계의 전쟁으로 확대되었다. 진주만을 잊지 말자는 말은 군인이거나 민간인이거나 간에 미국 사회의 구호로 통용되었다.

진주만을 기억 합시다-
우리가 적군과 싸우러 갈 때-
우리가 알라모를 기억하듯이-
그렇게 진주만을 기억합시다.
Let's remember Pearl Harbor -
As we go to meet the foe -
Let's remember Pearl Harbor -
As we did the Alamo.
(www.lawbuzz.com/.../internment_camps.htm)

1941년 12월 7일의 진주만 공격은 일본에 대한 미국인들의 무조건적인 반감과 혐오감을 불러 일으켰다. 진주만 공격 이후 일본계 미국인들은 미국에 대한 반역이라고 비난받고 스파이로 의심 받았다. 그 이후 일본계 미국인 커뮤니티는 『내가 원하는 것은 오직 내 몸』에 나타난 것처럼 수시로 감시를 받고 어떤 목적이던 집회의 자유를 잃게 되었다. 그 중에도 영어를 쓰면서 성장한 2세보다 여전히 일본어로 의사전달을 하던 일본계 1세가 미국 사회로부터 더 많은 의심을 받게 되면서 일본계 커뮤니티 안에서 이전의 권위를 잃게 되어 일본계 이민 2세에게 커뮤니티의 지도자 자리를 내어주게 되었다. 아들이 아버지의 위치를 대신하게 된 것은 진주만 이후 대부분의 일본계 미국인 가정에서 일어난 큰 변화의 하나이다.

막대한 피해를 입은 갑작스런 일본의 대공습을 일본계 미국인들의 조직적인 가담으로 판단한 미국은 루즈벨트로 하여금 1942년 2월 19일 마침내 행정명령 조치 9066(Executive Order 9066)호를 발동하게 했다. 이 조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조치는 “적법한 군 지휘관”에게 국가에 군사적인 위험인물을 가려 내는 권리를 부여했으며, 따라서 만약 위험인물로 판명될 경우, 군으로 하여금 그 인물들이 영향력을 행사할 지역으로부터 제거할 권리도 부여되었다. 캘리포니아 주 전역과 오리건 주와 워싱턴 주의 절반, 그리고 아리조나주의 3분의 1의 지역이 영향을 받았으며 따라서 “태평양 전선의 전쟁 구역”으로 선포되었다. 이 “구역”에 거주하는 모든 일본인 후손은 미국 정부에의 불충을 의심받았다.

정부 수사요원들이 일본계 미국 시민들에게 집과 직장을 떠날 것을 명령함으로써 이 미국시민들은-아이들까지 포함하여-수용소로 소개(疏概)되었다. 이들은 버스와 기차로 수송되어 전쟁 재배치 당국의 감시를 받았다.

The order authorized the “appropriate Military Commander” to determine whether anyone posed a military risk to the country and, if so, authorized the military to exclude those persons from affected geographic areas. The entire State of California, half of Oregon and Washington and a third of Arizona were affected and were declared “war zones on the Pacific Frontier.” Every person of Japanese descent living in those “zones” was suspected of disloyalty.

As governmental directives ordered Japanese-Americans to leave their homes and businesses, these American citizens - including children - were evacuated to desert internment camps. Transported by buses and trains, they were placed under the control of the War Relocation Authority. (www.lawbuzz.com/.../internment_camps.htm)

이로서 태평양의 모든 일본계 선조를 가진 이들에게 진주만 공격 2개월 뒤 재배치(War Relocation Centers)라는 곳에 신고하도록 명령을 내렸다. 미국 정치가들이 이러한 결정을 내린 동기는 일본군이 미국의 서부 해안지역을 침범할지도 모른다는 판단에서였으며 그들의 판단은 2달 전의 진주만 공격에 뿌리를 두고 있었다. 워싱턴의 정치인들은 일본군이 서부해안에 상륙할 경우 일본계 미국인들은 미국보다 일본에 더 충성심을 보여 그들을 도와 줄 것이라는 가정 하에 재배치라는 이름으로 이들은 집과 직장에서 멀리 옮겨져 수용되었다.

이들은 군인들의 감시를 받았으며 물질적으로도 4억불에 상당하는 손실을 입었다. 결과적으로 12만 명이 넘는 일본계 미국인들이 수용되었는데, 그 중 65%는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시민이었다. 급히 개조한 공진회나 경마장 트랙에 일시적으로 감금된 이후 10개 이상의 영구적인 전쟁 재배치 캠프가 황량한 내륙지방에 건설되었다. 캠프에서의 생활조건은 열악했다. 18피트×20피트 크기의 방 한 칸에 4명 이상의 가족이 기거했으므로, 수용자들은 타르벽지로 바른 목조막사에서 석탄난로 한 개로 난방을 했으며, 사적인 공간은 제공되지 않았다.

캠프생활의 스트레스는 가족관계를 와해시켜 1세대들은 종종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2세대들에게 공동체 지도자 자리를 내주게 되었다. 캠프내의 갈등은 ‘충성심에 관한 설문조사’에 의하여 더욱 악화되었는데, 이는 1세, 2세, 남성 여성 모두에게 그들이 군에 복무할 의사를 진술하게 하고, 일본국에 대한 어떠한 충성도 부정할 것을 요구했다. 모순되게도 일본계 미국인들이 겪은 강제수용의 경험은 전쟁 후 많은 2세대들에게 완벽한 백인사회로의 동화를 촉진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III. 일본계 미국 소설에 나타난 태평양전쟁

3.1 『내가 원하는 것은 오직 내 몸』의 경우

평소 일본인은 절대 잘못된 일을 하지 않는다는 대화사상에 빠져있던 하와이 이민 일본인 1세인 토시오(Toshio)의 아버지³⁾는 토시오로부터 일본이 하와이의 진주만을 공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도 토시오가 잘못 들었을 것이라며 믿지 않으려 한다. 그러나 토시오는 진주만의 공격을 알고 난 이후 일본의 잘못을 지적하고 현실적인 대응책을 모색하여 그 때부터는 집안의 일을 처리하는 사람은 토시오이고 아버지는 아들의 명령을 듣게 되었다. 진주만의 기습 이후 하와이 현지에서 사는 일본계 미국인이 일본군과 내통하여 정보를 주었다는 판단에서 군인이나 지역 책임자가 일본인 이민자인 토시오 가족을 의심스러워 할 때 아버지에게 단스(서랍)속에 감추어 둔 일본 국기를 없애라고 명령을 내리는 사람은 바로 토시오였다. 영어를 못하는 아버지가 미군을 상대해 봐야 공연히 알아듣지 못할 일본어로 말하여 그들의 의심을 부추길 염려가 있다는 토시오의 판단에서 가족의 안전을 위해 가족의 행동방침을 결정하는 것은 어느새 토시오로 바뀌게 된 것이었다.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일본 책들을 담장에 감추고 일본인이 아닌 사람이 주위에 한 사람이라도 있을 땐 일본말을 하지 마시라는 단호한 명령을 내림으로써 토시오는 가족의 생존을 모색한다. 실제로 일어난 일본의 기습을 믿지 않으려는 아버지의 불신은 일본인의 우월감에서 나온 것이며 다케모토(Takemoto) 선생님 또한 늘 그렇게 가르쳤다. 키요시(Kiyoshi)는 존경하는 다케모토 선생님의 가르침으로는 무방비 상

3) 이 소설 내내 아버지는 이름이 나오지 않고 오야마(Oyama)라는 성으로만 불린다. 어머니 역시 그냥 어머니로만 불릴 뿐이다. 다른 어른들도 이름은 나오지 않고 다케모토, 등으로 성으로만 소개된다. 이것은 미국과 달리 일본 문화에서는 사회적으로 남자 어른은 이름으로 불리지 않고 성으로만 불리기 때문이다.

태의 많은 인명을 살상한 일본의 진주만 공격을 설명할 수 없으며 그것은 분명한 일본의 잘못이라고 지적한다.

선생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일본인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지?’ 라고. 선생님은 요시츠네와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늘 해 주셨어요. 그들은 적 앞에 혼자 말을 타고 나가 그들의 이름과 계급을 큰 소리로 외친 다음 같은 계급의 적에게 앞으로 나와서 싸우자고 소리친다. 무사는 그의 말을 되돌리지 않는다, 그는 두 얼굴이 아니다, 두 번째 말은 필요 없다고 선생님은 되풀이해서 말씀 하셨습니다. 사무라이가 어떻게 선전포고도 없이 진주만을 공격할 수 있는 건가요?(20)

진주만 공격으로 일본계 미국인이 일본군과 내통하여 정보를 준다는 의심에서 미국은 1943년 영어를 하는 일본인 2세들로만 구성된 군단을 만든다고 자원입대를 요구했을 때 키요시는 결혼한 형 토시오를 집에 남기고 가족을 대표해서 자원하게 된다. 표면적으로는 자원입대이지만 한 집에 한 아들씩 입대시키지 않으면 미국에 충성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져 불이익이 올 것이 예상되는 반 강제성을 보인다.

이것은 진주만 폭격을 겪은 미국 정부로 하여금 일본계 미국인들이 미국을 배신하고 일본군에게 충성을 바칠 것이라는 확신에서 태평양 연안으로부터 이들을 격리시킴으로써 일본군과의 접촉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려는 목적에서의 강제징집이었다.

3.2 『노-노 보이』의 경우

1943년 2월 미국 육군은 하와이를 포함한 10곳의 일본인 집단거주 캠프 출신의 일본인 2세 청년들로만 구성된 전투부대(연대수준)의 결성을 위하여 각 캠프별로 자원봉사자를 조달하라는 전쟁수행본부의 지령을 수행하기 위해 수용캠프 내에서 징병을 시작했다. 확실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일본인 부모를 둔 미국 시민권자의 진술이라고 알려진 설문지를 통해 수용된 일본계 2세 남성을 대상으로 등록을 시행기로 결정했다. 핵심적인 27번과 28번의 설문은 다음과 같다.

27번: 당신은 어디서 명령을 받으면 어느 곳이던 미국 육군에서 전투 의무를 수행할 용의가 있습니까?

28번: 당신은 미합중국에 무조건 충성을 맹세하며, 외국군이나 국내의 병력에 의한 모든 공격에서 미국을 충실히 방어할 것이며 일본 황제나 다른 어떤 외국 정부와, 권력, 또는 조직에 대한 어떤 형태의 충성이나 복종도 부인하겠습니까?

No. 27. Are you willing to serve in the armed forces of the United States on combat duty, wherever ordered?

No. 28. Will you swear unqualified allegiance to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faithfully defend the United States from any or all attacks by foreign or domestic forces, and forswear any form of allegiance or obedience to the Japanese emperor or any other foreign government, power or organization? (Wong and Sumida, 143)

위의 두 설문은 재배치 위원회(War Relocation Authority)와 전쟁 수행부(War Department)가 공동으로 만든 것으로, 이러한 문항은 국가 안보를 위한 행정 목적으로 1942년에 들어 저항이 심해지고 있던 10개의 캠프로부터 문제아(troublemakers)들을 골라내기 위함이었다. 그런 상황 하에서는 등록은 필수적이었을 뿐 아니라 모든 17세 이상의 성인 남녀와 모든 1세 일본인에게로 확대되었다.

이 두 설문은 재배치의 초기 단계에 수용자들에게 미친 도덕적, 심리적 상처를 완전히 무시했기 때문에 질문에 강제로 답해야 했던 사람들 사이에 더 큰 공포와 반항을 일으키게 되었다. 모두 21,000명 중에서 약 4,600명이 분명하게 'No'라고 답했거나 응답을 거부했다고 알려졌다. 두 질문에 부정(No)의 답을 한 일본인 2세들은 즉시 다른 수용자들과 격리되어 툴 레이크(Tule Lake)의 분리센터(segregation center)에 다른 항목에서 '반역적'(disloyal) 이라고 분류된 수용자들과 함께 수용되었다. 격리 후 1년 뒤에 이들 'no-no boy' 들은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수용과 징집의 결과의 하나는 일본계 미국인 커뮤니티와 가족의 와해와 일본계 미국인 가족의 세대 갈등의 악화였다. 전쟁 이전의 1세와 2세간의 세대갈등은 대부분 시민권의 문제 때문에 생겼다. 일본법은 출생 장소와 무관하게 일본인 아버지의 자녀들을 자동적으로 일본시민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이중(double citizenship) 시민권 현상은 되풀이되어 일본인 2세들에게 미국인으로의 정체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미국법은 속지주의를 택하여 미국 땅에서 태어난 사람은 부모의 국적에 관계없이 미국시민으로 인정했다. 그렇지만 일본인 1세 중 누구도 1952년 매커런 월터 법령(McCarren-Walter Act)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미국 시민이 될 수 없었다. 이 법령 이전에 미국시민은 1790년의 귀화법과 많은 반 아시아 이민제약(1907년의 신사협정, 1913년의 캘리포니아 외국인 토지법, 1921년의 워싱턴 외국인 토지법, 그리고 다양한 반 잡혼법)을 통해 백인으로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노-노 보이』 는 이치로(Ichiro)가 연방교도소에서 풀려나 시애틀의 일본인 커뮤니티로 돌아오던 날 시작된다. 이치로가 집에 도착하자 미군으로 복무했던 다른 2세들은 이치로에게 경멸과 적개심을 보인다. 그들은 이치로의 병역거부를 미국인으로의 입증에 실패한 것으로 생각하여 그를 무시한다. 그는 끊임없이 그를 괴롭

히던 두 개의 상반된 정체성 혼란에 다시 휩싸이고 일본인 2세로서 전쟁 동안 미 육군에서 복무하기를 거부했던 자신이 경멸스러워진다. 다른 한 편으로 1세인 이치로의 어머니는 그의 병역거부를 지지한다.

그것은 그 자신의 감정을 무시할 뿐 아니라 그의 결정이 일본에의 충성심의 발로라는 오해로 확인되기도 한다. 일본계 미국인 커뮤니티의 극단적인 태도는 이치로가 돌아오는 집이 그의 분열된 자아만큼 분열되어 있음을 보여주며 그의 원천적인 정체성 위기를 심화시킨다. 이치로의 도덕적 딜레마에 대한 답을 찾는데 강력한 영향을 준 세 사람 중 한 사람은 다리에 말기 회저병(gangrene)으로 고통 받고 있으며 『노-노 보이』에게 공감하는 퇴역군인 겐지(Kenji)이며, 다른 한 사람은 일본에 우호적인 그의 어머니로 그녀는 인종적 차별에 대한 완강한 저항의 결과 자살을 선택한다. 또 한 사람은 남편에게 버림받고 사랑과 이해, 실용적 조언을 통해 이치로에게 동정을 보이는 이치로의 어머니 에미(Emi)이다. 겐지와 그의 어머니의 비교에서, 그들은 둘 다 소설의 전개과정에서 죽는데, 에미는 이치로의 과거 『노-노 보이』, 즉 그의 징집 거부의 오류와 일본계 미국인의 전쟁기간동안의 고통에 무관심으로 남아있는 사회와의 관계에 대한 자각을 형성하는데 절대적이었다.

이치로도 다른 대부분의 일본계 미국청년들처럼 공포 분위기 속에 질문의 의도를 올바르게 파악하지 못하여 두 질문에 No 라고 답함으로써 반역적이라고 분류되어 거주지인 시애틀로부터 먼 내륙지방으로 격리, 수용되어 감시를 받고 준 포로와 같은 대우를 받은 경우에 속한다.

두 질문에 모두 부정적인 답을 한 4,600명 가운데 질문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분명히 일본에 대한 충성심으로 미군에 복무하지 못한다는 답을 한 사람은 극소수이고 나머지는 이치로의 경우처럼 뿌리 깊은 가정교육의 영향으로 선뜻 그러겠다고 답을 하지 못한 것이다. 자녀가 일본에 충성스러운 국민으로 성장하기를 바랐던 1세대 부모의 영향으로 2세 자녀가 선뜻 그러겠다는 답을 하지 못한 것은 부모를 부정하는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즉 이 경우의 no는 ‘미국에 충성하지 않겠다’가 아니라 ‘잘 모르겠다(I don't know)’, ‘분명한 답을 할 수 없다(I'm not sure)’, 또는 ‘글썄요(Well...)’처럼 모호한 의미에 가까울 것이다. 아니면 문화적인 차이로 해석하여 서양의 사고방식은 Yes와 No가 분명한 데 비하여 일본 문화(동양문화의 공통점)에서는 확답을 하지 않고 여지를 남겨놓는 것이 미덕이었으며 자기주장을 앞서서 밝히기 보다는 남에게 기회를 양보하고 다른 사람의 견해를 따르는 것이 전통적으로 미덕으로 생각되어왔기 때문이다. 일본어 표현에서 유난히 ‘~라시이’(~인 듯 합니다), 또는 ‘~소우’(~같아 보입니다), ‘요우’(~처럼)으로 끝나는 표현들이 많은 것도 일본인들의 간접적 표현방식에 대한 선호의 산물이라고 생각된

다.

3.3 『2세 딸』의 경우

1941년 12월 7일의 진주만 공격은 미국의 반 일본적 정서를 대중적 히스테리의 수준까지 도달하게 하였다. 일본계 미국인들은 반역자요, 스파이로 의심받아 행정명령 9066에 의하여 태평양의 모든 일본계 부모를 가진 이들에게 재배치의 명령이 내려졌다. 이들의 재배치 준비기간으로 주어진 것은 겨우 며칠이었으며 몸에 지닐 수 있는 것만 소지하도록 허락된 상태에서 수용자들은 원래의 가격 이하로 소유물을 팔아 생계비를 준비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4억 불 정도의 손실을 입었다고 한다.

카즈코(Kazuko)는 마치 그녀가 ‘2개의 머리를 가지고 태어난’ 것처럼 느낀다. 백인 미국인들과 일본인들의 문화적 실행에 대한 차이에서 이토이(Itoi)의 가족묘사와 일본계 미국인 2세의 딸의 언어학적 혼합을 통해 ‘미국인’과 ‘일본인’ 사이의 선이 경직된 것이 아님을 암시한다. 그럼에도 소네는 종종 ‘일본인’으로 그녀가 동일시되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묘사한다. 이것은 그녀가 미국 공립학교와 방과 후에 다니는 일본인 학교 사이의 차이를 설명하는 데서 나타난다. 일본인 학교는 가족의 일본 여행 중에 만나는 일본인 사촌의 묘사에서도 그린 것처럼 순응, 억압, 복종과 연관된 장소이다. 일본에서 ‘외국인’처럼 느끼는 것처럼 카즈코는 자기 자신의 미국화가 스스로 생각했던 것처럼 완전하지 않음을 완전히 ‘미국적이지 못한 습관’을 통해 깨닫게 된다.

정체성의 논의는 소네가 편견이라고 언급한 사건과 긴밀한 연관성을 보인다. 인종차별의 현실은 이토이가의 피신과 수용, 그리고 시애틀의 일본계 커뮤니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후반부에서 분명해진다. 그러나 설명을 암시해주는 비평은 주로 지배문화 속으로의 동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는데 중점이 두어진다.

1953년에 출간된 『2세 딸』(*Nisei Daughter*)은 여전히 반일본적 정서가 높았던 종전 직후에 씌어졌으며 이 시기는 일본계의 백인 주류 사회로의 동화의 압력이 일본계 커뮤니티의 내, 외부 모두에서 왔던 시기였다. 1942년 일본계 커뮤니티에서 생겼던 일, 즉 재배치와 강제수용이 ‘미래의 세대에게 잊혀지거나 상실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씌어진’ 『2세 딸』이 배상 캠페인이 시작되던 1979년에 재판이 인쇄되었다는 사실은 이 책이 배상을 끌어내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1943년부터 대학생 나이의 2세들은 후원자가 있는 경우, 가족이 함께 사는 집단 캠프를 떠나 중서부나 동부 해안에서 학교를 다니도록 허용되었다. 많은 일본계들이 전후에 다시 서해안으로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출발은

일본계 공동체의 전후의 분산을 가속화시켰다. 동화의 무용함을 예시하는 대신, 감금의 경험은 많은 2세들에게 더 완벽한 백인사회로의 동화의 필요성을 강화시켰다.

3.4 『오바상』의 경우

캐나다에 온 첫 일본계 이민자들은 1877년 이른 시기에 캐나다에 도착했지만 1941년까지 약 2만 2천명 정도의 B. C.(브리티시 콜럼비아)에 있는 일본계 캐나다인은 여전히 외국인으로 간주되어 투표권이 없었으며, 법률가, 약사 등의 전문직은 물론 공직에 진출할 수도 없었다. 서부 해안의 인종문제는 더욱 격렬하여 1907년 밴쿠버에서 약 5천명의 백인 노조 지도자들이 중국계와 일본계 상점을 약탈하여 재산을 파괴하였을 때, 경제적 분개와 인종주의가 비등하였다. 그러나 2차 대전의 발발과 함께 황화(黃禍)라는 수식어로 커져가던 적대감은 일본계 캐나다인에게 집중되었다.

일본계 캐나다인의 수용과 재배치의 영향은 나오미 나카네(Naomi Nakane)라는 미혼의 36세 소도시 교사의 관점으로 전해진다. 1942년 밴쿠버의 집에서 화목하게 지내던 나카네의 가족은 안락한 일상으로부터 결별되어 피폐해진다. 나오미의 아버지는 많은 다른 남자들처럼 브리티시 콜럼비아 오지(奧地)의 도로보수관으로 보내져 거기서 폐렴에 감염되어 사망한다. 어머니는 전쟁 전 일본을 방문하려 가지만 캐나다로 돌아올 수 없었다. 외가 쪽 친척 카토가(the Katos)는 토론토로 이주하여 브리티시 콜럼비아의 외딴 섬으로 피신한다. 그러나 나오미의 양부모인 아야(Aya) 고모와 이사무(Isamu) 고모부, 그리고 오빠 스티븐(Stephen)은 그리 행복하지 못한 처지가 된다. 그들은 외딴 슬로칸에 살다가 종전이 되자 앨버타의 초원으로 이주한다.

이런 사건들은 가족에게 피폐한 심리적 상처를 남긴다. 스티븐은 음악에 혼신을 기울여 자신의 일본계 선조와 ‘지나치게 일본적인’ 가족을 벗어나기 위하여 세계를 순회하는 다소 이름이 알려진 음악가가 된다. 항상 조용하고 내성적인 나오미는 비사교적이고 감성적으로 성장한다. 고모와 고모부는 아이들이 혼란스러워 할 정도의 침묵 속으로 후퇴한다.

『오바상』의 이야기는 나오미에게는 의미 없는 나가사키의 원폭투하 27주년 기념일에 나오미와 이사무 고모부가 골짜기를 따라 걸어가는 장면으로 시작된다. 한 달 후 고모부가 갑자기 죽어 세실(Cecil) 인근에 살고 있던 나오미는 가장 먼저 늙어가는 고모에게 돌아간다. 그들이 다른 가족-스티븐과 에밀리를 기다리는 동안 나오미는 일본계 캐나다인의 인권을 위해 일하는 적극적이고 지치지 않는 활동가인 에밀리 이모로부터 온 소포 꾸러미에서 편지들과

에밀리 이모의 일기, 캐나다 정부의 일본계 캐나다인에 대한 부당함과 관련된 신문기사 등을 발견하게 된다. 이와 함께 나오미는 그녀 가족의 강요된 피난과 이산의 기억 이외에도 이웃의 백인에게 당했던 성적 학대의 기억을 다시 떠올리게 되어 수치심과 죄의식에 빠지게 된다.

1941년 12월 7일 진주만의 공습 직후, 캐나다 정부는 그들의 시민권과 무관하게 모든 일본계 선조를 가진 시민들이 1942년 2월 7일까지 적성국 거류 외국인으로 등록해야 한다고 선포하였고, 이러한 조치는 일본계 캐나다인에게 놀라운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다른 그룹과 달리, 일본계 캐나다인들은 국가보안이라는 이름하에 취해진 유례없는 조치의 표적물이 되었다. 12월 17일에는 태평양 해안 보안리그가 조직되었는데 지역의 입법자들로 구성된 이 리그는 연방정부가 일본계 선조를 가진 모든 사람을 철수시킬 것을 요구하였지만, 연방정부는 이 조치를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않았다. 참모부장이던 켄 스튜어트(Ken Stuart)는 육군의 입장에서 볼 때, 일본계 캐나다인들은 캐나다의 국가보안에 조금이라도 위협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증언했다(Adachi, 2003).

군(軍)에서는 이처럼 일본계 캐나다인들을 경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브리티시 콜럼비아 정부로부터의 압력과 이들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혐오 때문에 캐나다 정부는 1942년 1월 16일, 결국 18세에서 42세의 모든 일본계 남성 ‘외국인’은 서부해안의 ‘보호구역’에서 100 마일 이상 떨어진 지역으로 이주해야 한다고 선포했다. 가족의 해체는 고사하고, 이 조치는 약 17,000명의 가정의 가장들을 오지의 도로건설 업무로 보내 많은 가정을 경제적으로 파탄에 이르게 했다. 강제적인 재배치 명령과 함께, 약 12,000척의 어선이 몰수되었으며 보호지역에 머무는 사람은 어업이 금지되거나 고기잡이 허가가 보류되어 생계유지가 어렵게 되었다.

IV. 나오미

1943년부터 대학생 나이의 일본인 2세들은 후견인이 있는 경우, 캠프를 떠나 중서부나 동부 해안에서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다. 많은 일본계 미국인들은 전후에 다시 서부 해안으로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계 공동체의 전후의 이산을 가속화시켰다. 전쟁 동안 일본계 미국인들이 겪었던 강제 수용의 경험은 많은 2세들에게 보다 완벽한 백인사회로의 동화의 필요성을 강화시켰다.

일본 국민이나 일본계 미국인들을 캠프에서 석방시킨 것은 1945년 1월에 시

작되었다. 석방 당시 그들은 돌아갈 집도 직장도 없었고, 그들의 커뮤니티는 10분의 1로 격감했으며 어떤 사람들은 강제로 일본에 송환되기도 했다.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1946년에 끝난 캠프생활의 기억은 강제수용 그 자체만큼이나 깊은 외상을 남겨주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모순적이게도 일본계 미국인들은 전후의 회복 과정에서 새로운 '소수민족 모델'이 되어, 과거의 유형에 대한 변화로 이어졌다. 1979년 미국의 인권운동에 고무되어 일본계 미국인 3세와 젊은 2세들은 교정과 보상운동(The Redress and Reparations Movements)을 시작하여, 결과적으로 미국 정부의 공식적 사과와 보상을 이끌어냈다. 교정운동의 가장 큰 효과는 이것이 수 십 년간 부끄러운 침묵 속에 파묻혀 있던 주제인 강제수용에 대한 대화의 문을 열었다는 것이다.

비록 1988년 레이건 대통령 재임 시에 2차 대전 기간 동안 수용소에 수용되었던 일본계 미국인들에게 미국정부의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1인당 2만불씩의 배상금이 지불되기는 했지만, 노인과 어린이까지 감금했던 이 일은 아시아인에 대한 인종차별을 말해준다. 태평양 전쟁은 결국 미국에 거주하는 일본계 미국인들에게는 주위로부터 말 할 수 없는 고통과 차별을 받게 하였고 이로 인해 『오바상』이나 『2세 딸』의 경우에서처럼 가족의 해체와 이로 인한 가족의 경제적인 고통, 그리고 자신들을 범죄자처럼 느끼게 하는 죄의식을 안겨 주었다.

특히 하와이에 거주하는 일본계 미국인들에게는 일본군과 내통한다는 의심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일본인 커뮤니티 내부에서조차 내분과 갈등, 그리고 서로에 대한 불신감을 키우게 되는 커뮤니티 존립의 위협까지 가져오게 되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오직 내 몸』의 경우에서처럼 태평양전쟁 이전에는 일본계 미국인들의 문제는 주로 커뮤니티 내부에서 연장자나 존경받는 인물에 의하여 조정되었지만 태평양전쟁 이후에는 그런 질서가 무너지고 보다 미국화된 사람, 미국사회에 동화된 사람이 새로운 지도자로 부상하게 되었다.

태평양 전쟁은 일본계 미국인들의 결속력을 떨어뜨려 결과적으로 미국인으로서의 동화를 가속화시켰으며 격리, 수용의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 또는 그 가족들은 가족의 해체를 겪고 미국인으로서의 동화에서 나오되어 실패한 이민자로서의 생을 살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결국 해외에 거주하는 일본인과 그 자녀들까지를 일본시민으로 생각한다는, 자국민을 끔찍히 생각한다는 일본 정부의 야욕(진주만 공격) 때문에 이민생활로 힘든 죄 없는 '일본계 미국인들'만 전쟁이 끝날 때까지 3년 이상을 수용소에서 감시받고, 또한 그 후유증을 극복하지 못해 사회의 낙오자가 되었던 것이다.

일본계 미국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일본정부의 군사적 야욕이 일본계 미국인들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게 된 이해하지 못할 전쟁이 태평양 전쟁이며

일본계 미국인들이 일본 정부에게는 어떠한 형태로든 사과나 보상을 요구함이 없이, 미국정부에게만 사과와 보상을 받아냈다는 점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다.

【参考文献】

- 고선윤 역 『3일 만에 읽는 일본사』 서울: 서울문화사, 2007.
- 김애주 외 공역 『아시아계 미국문학의 길잡이』 서울: 한국문화사, 2003.65
- 연민수 편저 『일본역사』 서울: 보고사, 2005.
- 장태한. 『아시아인 아메리칸』 서울: 책세상, 2004.
- Adachi, Ken. *The Enemy That Never Was: A History of Japanese Canadians*. Toronto: McClelland, 1976.
- Ichioka, Yuji. *The Issei: The World of the First Generation Japanese Immigrants, 1885-1924*. New York: Free, 1988.
- Kim, Elaine H. *Asian American Literature: An Introduction to the Writings and Their Social Context*. Philadelphia: Temple UP, 1982.
- Journal of Asian American Studies*. John Hopkins University Press.
- Kogawa, Joy. *Obasan*. New York: Anchor-Doubleday, 1994.
- Murayama, Milton. *All I Asking for is My Body*. A Kolowalu Book: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88.
- Okada, John. *No-No Boy*.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1979.
- Pearl Harbor*(DVD). a Jerry Bruckheimer production a Michael Bay film, 2000.
- Sone, Monica. *Nisei Daughter*. U of Washington Press, 1979.
- Stephen S. Fujita, and Marilyn Fernandez. "Religion and Japanese American's Views of their World War II incarceration" *Journal of Asian Studies*.(Baltimore: Johns Hopkins UP.) vol. 5 number 2. June 2002. vol. 5. iss. 2.p. 26, 113.
- Shirley Geok-lin Lim. "Asian American Literature: Leavening The Mosaic" <http://www.usa.or.th/services/docs/work29.htm>
- Singh, Amritjit, Joseph Skerrett, and Robert Hogan, eds. *Memory and Cultural Politics: New Approaches to American Ethnic Literatures*. Boston: Northeastern UP, 1996.
- Wong, Sau-ling Cynthia. *Reading Asian American Literature: From Necessity to Extravagance*. Princeton: Princeton UP, 1993.

Wong, Sau-ling Cynthia and Stephen H. Sumida. *A Resource Guide to Asian American Literature*. New York: The Modern Language Association of America. 2001.

Wright, Richard. *Native Son*. New York: Harper, 1998.

www.library.csustan.edu/pcrawford/asianlit/

www.falcon.jmu.edu/~ramseyil/asian.htm

<http://kin.naver.com/detail/detail>.

www.amazon.com/tag/japanese%20american%20literature

wordpress.com/tag/japanese-american-literature/

marksarvas.blogs.com/elegvar/2004/01/japanese_amer.html

要 旨

The Pacific War Reflected in the Japanese American Literature

The term Japanese American literature generally refers to those literary works written by Japanese Americans born in the States under Japanese parents or at least under a Japanese father. As the Japanese immigration to the States began in the beginning of the 20th century and mostly to Hawaii as the Hawaiian plantation owners drafted poor Japanese farmers in the south western area of Japan after the Meiji Yushin(Modernization of Japan).

Most of the Asian American literature deal with the hardships and sufferings of the 1st-generation Asian Americans in the process of their settling in the States. But what is special with Japanese American literature must be that they unanimously reveal Japanese Americans' internment and relocation after the Pearl Harbor Attack. Japan's stealthy attack arose hostility in the American public toward Japanese Americans in general. After the Attack, Americans believed that Japanese Americans would betray America and sure to be loyal to Japan.

The Pacific War totally affected and changed lives of the Japanese Americans during the internment and relocation. These changes were faithfully described in the Japanese American literature.

1). In *All I Asking is My Body*

After the Pearl Harbor Attack, Toshio, was shocked to know that Japan had secretly raided Pearl Harbor on a Sunday morning without warning. He had been educated that Japanese are special and never does shameful things. As his belief is betrayed, he decided to abandon Japanese citizenship against his father's advice. And after the attack, he takes place of his father's position in the family for the sake of his family.

2). In *No-No Boy*

In the internment camp he was required to answer 2 questions on patriotism. His answer were 2 'No's not because of his patriotism to Japan but because of his weak confidence in his American identity. He had been strongly influenced by his pro-Japanese mother and thought his 'Yes' would

betray his mother. As Ichiro had been discharged from a prison(relocation camp), he came home, in Seattle to find his friends and neighbors despise him as a failure of approving himself as an American.

3) In *Nisei Daughter*

The tensions caused to Itoi family as an aftermath. Kazuko was released to the Midwest in 1943 for college education. After Kazuko, visited her family in the internment camp, she was found to have overcome her identity conflict and also found to be a good example for accomplishing successful assimilation into mainstream American society.

4) In *Obasan*

In *Obasan*, Naomi's family is fragmented and dispersed after the Pearl Harbor Attack. Her father was sent to interior British Columbia to road gangs and died from tuberculosis. Her mother who went to visit Japan, unable to return back to Canada, was disfigured by the atomic bombing of Nagasaki and died from her wounds. *Obasan* shows how Japanese Americans suffered from a forced internment through Naomi. This story ends with Naomi's return to the coulee implying her healing but it would be evident she could never be able to recover from her wounds.

Consequently, the Pacific War ignited by Japan's long-prepared attack to the Pearl Harbor, is portrayed, very suspectful and discouraging in detail, Japanese American writings as a shameful history for Japan. Pacific War desolidates Japanese integrity and thus ironically foster assimilation into American society.

Japanese Americans were victims of racial prejudice and had to suffer a lot only because he or she was second-generation Japanese. But it must be clear that all the sufferings the second-generation Japanese had undergone had been the aftermath of the 'Pacific War' and had accelerated their assimilation into the mainstream of American society. What is absurd must be that no Japanese accused their government of their suffering. Instead the Japanese Americans had pressed American government to admit their fault and thereby got compensation of 20000 dollars for their mistakes they had committed during the World War II.

キーワード ; Pearl Harbor, The Pacific War, Japanese American , Relocation,
Internment

투 고 : 2008. 8. 31
1차 심사 : 2008. 9. 12
2차 심사 : 2008. 9. 27